

화백세상(和白世上)을 열자②

■ 一沙權正孝

(우리정신연구회장·애국단체협의회 고문)



잡이를 하며 살고 있고 전투경찰이 상주해 있는 섬이 고 이어도도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이 저희를 영토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설익고 지각없는 사학자들이 우리 고 대사를 위서니 허사라며 도외시 하였고, 무지한 위정자들은 본분[국정]을 망각한 채 사익과 측근 돌보기에 연연 하면서도 국정일중 으뜸인 개천절 행사 때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으며 특히 金盧는 근현대사를 오욕의 역사라고 폄하하였고 독도를 한일간 공동수역으로 어업협정[김대중]을 정한 데 따른 자연자득이 아닌가?

기아차 살린다고 큰 소리 공언한자 국정까지 맡았었는데 기아차 다른 회사에 넘기지 않고 살렸나? 그들은 이제 헛된 편벽 망상으로 찰이 들지 않은 청소년들을 꼬드기는 술수는 그만 그치고 우리 옛 선각자 어른들이 물려준 화백정신(和白精神)을 배우고 익혀 사람값 할 수 있는 자질부터 갖춰 和白세상을 여는데 일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배달국 시대의 “중의일귀위화백衆議一歸爲和白”의 화백제도가, 2500여년전 중국 孔子의 “화위귀와爲貴”로, 원효의 화쟁으로, 일본 명치유신의 “대화혼大和魂”으로, 세월이 흐른 근세 한국은 88서울올림픽 때 “조화”를, 일본은 대관 2002 월드컵 경기 때 응원단 머리띠의 “화혼”을, 중국은 북경에서 열렸던 2008 올림픽 개막행사때의 상징은 “화해화합”이다. 이 화두는 우리의 “和白”이 그 근원이요 韓中日 삼국이 사전에 講律 한 듯이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수만자의 한자중에서 “和”를 골라 내 세운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요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桓은 5800 여년전, 동북아 일대를 누볐던 배달국[개국시 술도3000명]이 멸망한 이후 고조선[개국시 술도800명]부터 국력의 쇠잔으로 인하여 광역이 점점 축소됨에 따라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으나 지구촌 인구 절반이 우리 桓國의 후손들이다. 이리함에도 일본은 독도를 저희들 것이라고 생떼를 쓰고, 중국은 이이도가 제나라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남과 북, 동과 서, 우와 좌로 갈려 날마다 다투느라 국론이 분렬됨으로써 국력이 소진돼 가고 있으니 앞잡아 보고 저희들 영토라고 하지 않나? 독도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이 고기

중국이 저희들 영토라고 억지 부리는 것은 설익고 지각없는 사학자들이 우리 고 대사를 위서니 허사라며 도외시 하였고, 무지한 위정자들은 본분[국정]을 망각한 채 사익과 측근 돌보기에 연연 하면서도 국정일중 으뜸인 개천절 행사 때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으며 특히 金盧는 근현대사를 오욕의 역사라고 폄하하였고 독도를 한일간 공동수역으로 어업협정[김대중]을 정한 데 따른 자연자득이 아닌가?

중국은, 등소평이 집권한 뒤 문화혁명 때 훼손한 공자 사상이념을 복원하는가 하면 싱가포르 화교의 자금지원을 받아 하북성 탁복현에 삼조당(三祖堂)을 지어 놓고 黃帝[봉치], 蚩尤[치우-軍神], 伏羲[곡신]를 저희들 셋 조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동북공정이란 정책을 내세워 옛 고구려가 저희 제후국이라며 광개토태제비 주변에 철책으로 막아 우리 관광객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蚩尤(치우)는 倍達國 14대 자오지(天帝)로 위 황제(黃帝)와 72회 싸워 전승 하였기에 별칭이 “도개비”로 동북아 전역에 전해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치우천황을 5000 여년전 부터 모택동 시대까지 원수로 치부 해 왔으나 이제 저희조상으로 받들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는 환인 환웅 단군신사(桓仁 桓雄 檀君神祠)를 잘 보존하고 있다 [치우학회, 金尙來(전 아남그룹 회장) 저 “일본은 한국이더러”]

일본과 중국의 위정자들은, 한국의 분렬상을 기회 삼아 작은 섬 하나를 차지하려는 것은 궤변(讒辯)이요 한국을 업신여기는 작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소인배들이나 억지 쓰는 근시안적 처신일 뿐, 같은 문화권에서 자중지만으로 인해 거세게 다가오는 국제자본에 대응 못하여 공멸 할 위험도 있다. 中·日은 황당무괴(慌蕩無佛)한 섬(島) 영유권 주장을 속히 중단하고, 韓·中·日이 합심 협력할 수 있는 삼국의 공동분묘인 “중의일귀 위화백(衆議一歸爲和白)” 다시 말해 “和白”정신으로 통쳐야 불려간 두뇌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화백세상을 열어야 할 수 있다.

韓·中·日은 다 같은 한국의 후손들이다. 작은 일에 매달려 결속력을 떨어뜨리고 서로 다투어 자승자박하는 우행을 하 루속이 벗어나서 우리 환인(桓人)을 선조들이 물려준 대승적 자세인 고귀한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생명중시 정신인 “和白”정신으로 합심협력하여 동북아의 구심체로 우뚝 서서 한자문화권인 범 아세아권 불려움을 조속히 결성해야 한다. 이 시대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불려관, 문화권간, 두뇌간 경쟁하는 세상이다. 같은 한국 후손인 인접국가간에 소탐은 버리고 삼국이 힘을 모아 和白세상을 열어야 할 한다.

배달국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在世理化)”는 인류구원 사상이요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삶의 실천(화백)철학이다. 2008.9.17일 동북아경제 서울포럼에서 “이참”(이한우, 참스마트 대표이사, 독일태생 22년전 귀화)도 홍익인간 사상과 이념은 세계 유일 무이한 사상이고 이념이다 “弘益人間” 실천만이 잘못 흐르고 있는 세상을 바로 고칠 수 있다고 열변했다. 물질우선의 사회 풍조 내실은 비윤체 외형치장에만 정신 쏟는 불완전한 세류를 바로 삼자면 화백세상이 열려야 희망찬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북위 효문 제시절의 이야기이다. 북위는 선비족 탁발씨로 중원으로 들어와서 북중국을 통일하고 도읍으로 낙양으로 옮기면서 중국경영에 온 힘을 기울이던 시절이었다. 효문제는 북중국으로 통일하고 남쪽에 있는 제(齊)마저 정벌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은 전쟁(戰場)을 누벼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효문제가 정벌전쟁을 떠나기 2년 전에 황후가 된 풍씨(馮氏)는 독수공방을 견디지 못했는지 하관 가운데 고보살(高普薩)과 통정을 하였다. 그런데 효문제는 전장에서 병까지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으니 풍후(馮后)는 꺼릴 것이 없이 행동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터졌다. 효문제의 딸인 팽성(彭城)공주가 송왕(宋王) 유창(劉昶)에게 시집을 갔다가 과부가 되었다. 그러자 풍후는 팽성공주에게 그의 남동생 풍후(馮后)에게 개가를 하라고 강권하였다. 말하자면 서모가 전실 자식을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고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팽성공주의 입장에서는 풍씨 집안이 지나치게 음란한 것을 보아왔는지라 풍후에게 재가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풍후의 압력을 견디다 못하여 전신으로 아버지 효문제를 찾아가 하소연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풍후가 낙양에서 한 음란한 짓거리를 모두 고해 바쳤다.

효문제는 이를 겉으로 발설하지 않았지만 풍후의 귀에도 공주가 황제에게 갔던 일이 알려지자 이번에는 여자 무당을 불러서 황제가 일찍 죽기를 기도하게 했다. 그리고 황제가 죽기만 하면 자기가 북위의 권력을 잡을 것이며 그때에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리되자 효문제는 급히 낙양으로 돌아와서 고보살 등을 붙잡아 신문하여 결국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히 알아냈다.

사실 풍후(馮后)는 북위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문명(文明)태후의 조카딸이었고 그 아버지는 문명태후의 오빠는 풍희(馮熙)였다. 풍희의 딸 가운데는 말쟁을 일으킨 풍후 말고도 다른 한명도 황후

사물이란 왕성한 후에는 쇠잔해 진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 교수, 삼학고전연구소 소장)

였고, 또 다른 딸 하나를 소의였으니 그 권력을 북위에서 실사 황제조차도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집안이니 북위의 황족인 탁발씨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집안인 것이다. 그래서 효문화제도 풍후를 죽이지 못하고 겨우 유예시키는데 그쳤다. 이러한 것을 밟고 풍후가 그러한 짓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것을 본 황문시랑 최광(崔光)이 풍희의 서자인 풍율과 같이 속직하면서 풍율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가문은 부귀가 지나치게 웅성하니, 끝내는 반드시 쇠퇴하고 실패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풍율이 빨끈하여 말하였다. “우리 가문이 무슨 죄를 진 것이 있다고 그대는 까닭 없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요.” 최광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 사물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쇠하여지는 법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에서의 보편적 이치요. 만약 옛날 일을 가지고 그것을 미루어 본다면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소.”

이후 일 년여가 지나서 풍씨 집안에서 풍후는 황후에서 쫓겨나고 다른 형제인 풍후(馮后)도 그 형제간에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죽게 된다. 모두 크게 실패한 것이다. 뒤이어 풍희가 죽자 그 집안은 여지없이 몰락하였다. 유예되었던 풍후도 죽고 최광으로부터 경고를 들었던 풍율도 풍씨가 몰락하는 바람에 역시 쫓겨났다.

최광이 풍씨 집안사람들의 막 패 먹은 행동을 보고 그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본 것인지, 그의 말대로 그냥 세상이치를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닌 집안 형세를 등에 업고 출세한 사람의 말로를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해가 정오를 지나면 기울고 꽃도 열흘이 지나면 시드는 것이 이치인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다음호에 계속)

■ 역사가명

석담(石潭) 권대운(權大運)과

동서봉당(東西朋黨)의 영향

■ 향촌 권오창 (본문 저자문위)



를 올려 자신의 잘못을 자청하자 그를 춘천으로 유배시키고 남인측인 권대운 이하진 등이 조정에 진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그래서 남인측 인사가 조정의 주도권을 잡았다.

1674년 8월에 현종이 승하하자 승종이 14세의 나이로 제19대왕으로 즉위하였다. 이 때에 서인측 영수의 위치에 있던 송시열 등을 탄핵하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왜냐하면 당시 우의정 김수흥은 기해년에 기년복을 주장하여 유배를 당했는데 같은 주장을 한 송시열에게도 반듯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소였다. 그래서 당시 남인 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영의정 허적이 여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을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냈다.

그 때에 강경파 남인은 허목 윤후 오정창 오시수 이무 조사기 등이었고 온건파 남인은 허적 권대운 민희 김취 민점 목내선 등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조정 분위기는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남인이 강경파인 청남파 온건파인 탁남이 대립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렇한 와중에서 영의정 허적이 궁중의 유약(維韜)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승종의 노여움을 샀고 그의 서자인 권(璽)의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사되었다. 그러나 1689년에 신원되었다.

차제 승종은 남인세력을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서인 세력인 장인 김만기를 훈련대장 신여철을 총용사로 임명하고 김수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11월19일 현재)

■ 총재단회비
△권오수(부총재) 10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섭(진천, 북야공파) 10만원
△권오량(예천, 대종원) 10만원
△권용덕(고양, 종파) 10만원
△권오수(안동, 대종원) 10만원
△권영건(예천, 검교공파) 10만원
△권종호(대전, 추밀공파) 10만원
△권오기(안동, 부정공파) 10만원

소계 70만원

합계 170만원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②

백일홍

■ 靑南 權寧漢 (안동전문문화연구회장)



백일홍은 무더운 여름에도 생기를 잃지 않고 오래오래 꽃을 잘 피우는 원기 왕성한 나무입니다.

옛날부터 화무십일홍이라, 즉 10일 동안이나 붉게 피는 꽃은 없다고 하였으나 백일홍만은 이름 그대로 100일 동안이나 한결같이 붉게 아름다운 꽃을 잘 피우는 꽃나무입니다.

중국 원산인 나무는 백홍나무, 자미(紫薇), 패양수(鵬祥樹)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고 옛날부터 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유서 깊은 서원이나 정자, 사찰 등에는 꼭 심겨져 있는 정든 나무입니다.

백일홍에는 목본 이외에도 초본 백일홍도 있는데, 초본인 백일홍은 멕시코 원산인 야생초를 개발한 것이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꽃입니다.

꽃색은 붉고 모양은 접시꽃같이 생겼으며 절화용으로 많이 씁니다.

백일홍을 간질나무라고도 합니다. 간지럼을 잘 타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백일홍의 껍질 중 하나인 꽃을 손톱으로 조금만 긁으면 나무 전체가 간지럼을 타듯 움직인다는 뜻에서 붉은 별명입니다.

꽃이 만발한 백일홍을 만나거든 한번 굽어 보고 간지럼을 타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 한다.’라고 하는 쯤 긴 말입니다.

떠나간 벗이란, 잠시 내결을 떠나간 벗과 아주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린 벗들이 있으나 이 두 벗들, 즉 내 곁에 없는 벗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정자 앞에 백일홍을 심어 두고 늘 다정했던 떠나간 벗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가을이 어디서인지 오고 있는 듯 초저녁에는 많은 풀벌레 소리와 함께 애절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가오는 계절은 언제나 요란하게 다가와도, 떠나가는 계절은 언제 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가고 마는데, 아마도 지금 여름이 슬그머니 물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가을이 오고 있는지, 백일홍 꽃을 보지 않아도 다정한 친구들 생각이 간절합니다.

절에 가도 백일홍을 많이 보는데, 스님들 세계에서는 살던 집을 떠날 때, 간다는 하지 인사없이 바랑하나 걸머지고 홀연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가버린 벗을 생각하며 텅 빈 마음으로 백일홍을 바라보며, 스님들도 명상에 잠겨며 하염없이 백일홍을 보는 지도 모릅니다.

백일홍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어촌에 예쁜 딸 하나를 잘 기르고 사는 김 첨지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매년 처녀 하나를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오랫동안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속에 목이 세 개 달린 괴악한 이무기가 살고 있는데,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그 동네를 온통 속밭으로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첨지의 딸이 제물로 지정되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무기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김 첨지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어쩔할 도리 없이 딸에게 족두리와 흰옷을 입혀서 바닷가에 차려 놓은 제사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니 한 장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무기를 처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청년은 처녀 차림으로 변장하고 제사상위에 올라가 이무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후 이무기가 긴 목을 흔들며 제사상 위로 덩벼들자 청년은 재빨리 같은 뿔아 이무기의 목 하나를 베어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무기는 혼이 나서 도망을 쳤으며 동네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녀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

름없는데 당신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저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아직은 이르요. 나는 옥황 상제의 아들인데 잃어버린 여의주를 찾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소. 100일만 기다려 주시오. 즉시 여의주를 찾아 올 터이니…” 하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바다로 배를 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의주를 찾았을 때는 배에 흰 기를 달고, 찾지 못했을 때는 붉은 기를 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처녀는 백일 동안 기도하면서 장사가 여의주를 찾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백일이 되었습니다. 처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배에는 붉은기가 달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녀는 백날의 기도가 허사가 되고 모든 꿈이 깨어진 슬픔으로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배는 무사히 물에 도착하고 장사는 여의주를 찾아서 돌아왔는데, 붉은 깃발은 원래 흰 기를 달았는데 돌아오는 도중 목이 잘린 이무기가 나머지 두 목을 흔들며 장사에게 도전을 하였기에, 장사는 그 싸움에서 두 목까지 잘라버렸고, 그때 흘린 피가 흰 기를 붉게 물들인 것을 장사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는 처녀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며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 주었는데 그 무덤에서 족두리 같은 꽃을 머리에 얹은 꽃이 피어나니 동네 사람들은 백일 동안이나 기도한 정성으로 꽃이 피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꽃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왔는데, 꽃마다 슬픈 전설이 있는 것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슬픈 것과도 통한다는 이치에서인지 꽃에 얽힌 전설은 대부분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픈 전설만 있습니다.

백일홍의 꽃말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길가에 만발한 백일홍을 보면, 우리도 멀리 떠나 사는 다양한 벗들에게 편지나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끝)